

미래세계의 대학으로 준비하는 전주대학교

이 종 의
전주대 총장



1. 설립배경 및 창학이념

1 995년 5월에 개교 31주년을 맞이한 전주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학교의 이념으로 삼아 설립된 호남 유일의 기독교 명문 사학이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위치한 전주대학은 1964년 1월에 전주영생대학으로 출발하였으나 1978년 10월 전주대학으로 교명을 바꾸었으며, 1983년 9월에는 오늘날의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었다. 그 다음해인 1984년에는 신동아 그룹이 전주대학을 인수함과 동시에 최순영 박사가 신동아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본교는 도약의 발판을 이루게 되었다. 최순영 이사장은 본 대학의 교육이념

을 진리, 평화, 자유의 기독교 정신과 홍익인간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와 민족은 물론 인류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지도자적 인재를 양성함에 두고 전주대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학교법인 신동아학원은 본교를 비롯하여 전주공업전문대학, 전주영생고등학교, 전주영생여자상업고등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독교 믿음을 기초로 국가와 사회 그리고 나아가서 세계에 헌신하는 능력 있는 사람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전주대학은 제1대 총장부터 제5대 총장에 이르기까지 지난 30년 동안 학문의 수월성과 영적 성숙성을 추구하고, 대학 본연의 사명인 진리탐구와 인류에 봉사하는 기독교 명문사학으로 정진하여 왔으며, 특히 1993년 1월에 제

5대 총장으로 부임한 이종익 박사는 영원한 진리 구현과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할 지성적 전문인을 육성하기 위해 유능하고 덕망 있는 교수진과 수준 높은 시설을 갖추고, 값지고 자랑스런 전통을 세워 나가는 기독교 명문사학으로 응비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2. 학교규모 및 교육환경

본교가 자리잡고 있는 전주는 13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古鄆로서 한때는 후백제의 왕도요 조선조의 발상지로서 역사와 더불어 많은 흔적과 명칭을 지닌 곳이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전라도를 통괄하는 전라감영의 소재지였으며, 국악의 발상지인 전주시는 현재 인구 60만 명을 포용하는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지이자 전라북도의 도청소재지다. 전주대학은 바로 이 전주시의 서남단에 위치해 있으며, 전주대학교 인근에는 국립전주박물관, 전주 사이클 경기장, 류인택 기념체육관이 있으며, 캠퍼스 내에는 영생고등학교, 영생여자상업고등학교, 곧 이사 오게 될 전주공업전문대학 등이 자리잡고 있다. 최근 확정된 도시계획에 의하면, 본교 주변을 대학촌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 명실공히 학문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교는 1995년 현재 약 30만 평의 캠퍼스에 2부대학을 포함한 8개 단과대학 54개 학과와 대학원(석사과정 36개 학과, 박사과정 8개 학과), 그리고 지역정책대학원(석사과정 5개 학과), 중소기업대학원(석사과정 4개 학과), 교육대학원(석사과정 6개 전공), 국제학대학원(석사과정 4개 학과) 등의 전문대학원이 있다. 본교의 재적생은 학부생 10,000명, 대학원생 500명 등 모두 10,500명 정도이며, 교직원은 450명(교원 210명, 직원 240명)이다.

대학 부속연구소로는 인문과학 분야에 대한 이론 연구와 그 응용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인문과학연구소, 법률·정치·행정을 위시하여 지역의 계획·경제·사회복지에 관한 문제에 대해 연구를 하는 사회과학연구소, 경제 및 경영에 관한 연구 조사를 위한 산업경영연구소, 자연과학의 기초 및 응용 분야 연구를 위한 자연과학연구소, 상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학이론과 그 응용 연구를 하는 공학연구소, 예술문화 발전을 위한 학술적 실천적 연구를 하는 예술문화연구소, 교육에 관한 이론과 실제 및 학생생활을 연구하는 교육문제연구소, 균형된 지역발전을 위한 학술적 이론과 실체를 조사 연구하는 지역연구원, 기독교 전파를 위한 학술적 연구 및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기독교연구원 등이 있다.

한편, 부속기관으로는 학원 복음화를 담당하는 대학교회와 2,000여 석의 열람실과 대출실, 참고정간실, 고제도서실, 고서실 및 기독교 자료실을 갖춘 중앙도서관, 각종 민속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 대형컴퓨터를 갖추고 행정전산화는 물론 교수 및 학생의 연구를 지원하는 전자계산소, 연식정구·축구·레슬링·씨름 등 현재 7개 종목에 80여 명의 선수가 활동하고 있는 체육부, 교양교재 및 교수 연구논문집을 간행하는 대학출판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대학신문사와 교육방송국, 대학의 사회봉사 기능의 수행을 위한 사회교육원과 예능교실, 학생들의 취업기회 확대에 기여하는 취업개발부, 본교의 국제화를 위해 교수 및 학생의 국제교류를 촉진하고 국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협력교육부,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을 키워 주는 언어교육원 등이 있다. 또한 각종 고시에 응시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2개의 고시반(법정, 상경제) 등이 운영되고 있다.

대학의 교사와 부대시설로는 경상대학교 2부대학이 사용하는 경상관, 인문대학·대학원·중소기업대학원·지역정책대학원·교육대학원·국제학대학원·사회교육원 등이 사용하는 인문

관, 소강당과 중강당, 그리고 음악학과·미술학과·체육과 등이 사용하는 예체능관, 법정대학과 지역학대학이 사용하는 법정대학관, 이공대학이 입주해 있는 이공관, 144학군단이 입주해 있는 군사교육관, 사범대학과 이공대학의 공학계열학과가 사용하는 사범관, 대학본부·도서관·박물관·기타 부속기관이 있는 중앙도서관, 학생처·대학신문사·교육방송국·총학생회·여학생회 등이 사용하는 학생회관, 체육부 사무실과 축구부를 비롯한 선수들이 기거하는 영광의 집, 전자계산소가 전용 건물로 사용하는 전자계산소, 교수들이 연구실로 사용하는 교수연구동, 그리고 핸드볼·농구 등을 실내경기로 할 수 있는 체육관 등이 있다.

3. 교육목표 및 방향

정부는 UR 협상의 타결로 국내의 모든 교육부문을 국제적인 학문교류와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995년부터 외국에 개방하기로 하였으며, 금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로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화, 국제화 그리고 지방화라는 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주대학은 다음의 몇 가지 특색 있는 교육목표 및 방향으로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첫째, 본교를 포함한 경남대·계명대·울산대·한남대·호남대 등 6개 대학은 대학교육의 자율화·개방화·국제화라는 국가 사회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면서 대학간 균형 발전과 지역적 한계성 극복을 위해 교육, 학술, 학생복지, 행정, 국제교류 등에 대한 협력관계 발전을 증진시키고자 중남부 6대 대학 연합(Mid-South University Consortium)을 형성하였다. 6개 대학교는 교육 및 학술 분야 협력, 관리행정 분야 협력, 학생복지 분야 협력, 도서관 운영 분야 협력 등에서 공동노력을 하기로 하였다.

둘째, 대학교육의 국제화를 위해서 학생들에게 국제적인 안목을 주며, 국제적인 환경을 더욱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영어로 강의하는 과목을 개설하였다. 즉, 영어로 강의하는 국제교육프로그램들은 외국학생들뿐 아니라 전주대학생들에게도 제공되므로 한국과 외국과의 global linkages 구축에 도움을 줄 것이며, 교직원에게 변화하는 국제환경의 도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며, 다가오는 21세기 국제화에 대비하여 필요불가결한 인적 자원의 개발을 증진시켜 주게 될 것이다.

셋째,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언어교육원과 사회교육원은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에 대한 외국어 교육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이 두 교육원은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지역주민, 교직원,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넷째, 국제학대학원의 신설이다. 국제화·개방화 시대의 국제경쟁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제학대학원을 신설하였다. 국제학대학원은 국제경영학과, 국제관계학과, 국제지역학과, 국제선교학과 등 4개 학과로 구성되어 21세기 국제화·개방화 시대 도래에 따른 국제경쟁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대한 지역학적 접근과 관계론적 접근 방법을 통한 연구와 해당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독교선교 등 광범위한 교육을 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지역정책대학원, 중소기업대학원, 그리고 교육대학원은 우리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의 개발, 그리고 이 지역사회의 교육·문화·경제·정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여섯째, 본교의 취업률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취업의욕 및 편학분위기 향상을 위해서 산학협동 체제와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인근 지역의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기술인력을 양성 공급하고, 핵심 기반기술과 설계 및



◀ 전주대는 호남 유일의 기독교 사학으로서 중·남부 6개 대학 연합으로 대학교육의 자율화·개방화·국제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는 지역사회 인재양성의 요람이다.

생산 기술을 기업체와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여 산학협동 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전자계산소에서는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여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95학년도 1학기부터 전산원을 개설하였다. 전산원의 정보처리학과에서는 2급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중견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양성하며, 전자계산학과에서는 2급 전자계산기사 기사자격증을 취득하는 중견 기술인을 양성하고 있다.

4. 장기발전방향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경쟁력 있는 기독교 명문사학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본교에서는 장기발전계획에서 다음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즉, 합리적인 경영을 위한 내실화, 교육의 질을 다지기 위한 세계화, 새시대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멀티버시티의 다양화 등이다.

첫째, 연구활동 지원 확대이다. 교원 연구역건 조성방안의 일환으로 교원 연구활동 지원제도를 활성화하여 더욱 많은 교원이 혜택을 받

을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둘째, 대학재정 확충의 한 방안으로 대학 장기발전계획 기금 모금을 시작하고 있다. 전주대학교는 세계화·국제화 시대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대학 본연의 사명인 교수, 연구, 봉사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이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을 주도해 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현실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세계 우수 대학들과 견줄 수 있는 교육여건과 교육 프로그램의 선진화가 절실히 요청되므로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발전기금을 모금하고 있다. 이 기금은 본교 교직원 및 학생들의 학술연구, 장학금, 우수도서의 구입,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후생복지 사업 등에 투자하여 본교가 세계 속에 우뚝 선 모습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자 한다.

셋째, 기존학과와의 통·폐합, 교과과정 운영개선, 교수강의평가, 교수업적평가 등을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체제를 재구축(restructuring)함으로써 대학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넷째, 교직원 및 학생 해외연수 강화와 교환학생 파견이다. 본교는 대학교육 국제화의 일

환으로 교직원 및 학생들의 해외연수와 유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특히 해외 자매결연 대학에 대한 교직원의 해외연수 및 학생들의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학생 어학 단기 해외연수로서 미국의 비올라 대학에 30명, 상해사범대학에 27명을 보낼 계획이며, 교직원 해외연수에 40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자매결연 대학과의 국제 공동프로젝트 및 국제 공동세미나 등을 통하여 대학간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다섯째, 글로벌 네트워크의 강화이다. 1995년 6월 현재 본교는 미국, 영국, 독일, 중국, 태국, 폴란드 등 9개의 외국 대학 및 외국 연구소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교수 및 학생교환 등 활발한 국제협력을 해오고 있다. 다가오는 국제화 시대를 대비하여 외국 대학과의 자매결연을 더욱 확대해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여섯째, 언어교육원의 활성화이다. 실제적인 언어능력을 구비한 인재양성을 위해 외국인 교수진을 대폭 강화할 것이며, 또한 언어실습실의 확대 등을 통해 언어교육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일곱째, 영어강의 확대이다.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여 대학교육을 실질적으로 국제화하기 위하여 영어로 강의하는 과목을 더욱 늘릴 계획이다. 적어도 각 학과에 1과목 정도는 영어로 강의하는 과목을 개발할 계획이다.

여덟째, 사회교육원의 확충이다. 지역주민들은 국제사회 시민으로서의 자아 실현과 새로운 직업선택의 준비과정으로서 대학개방을 요구하여 왔으며, 대학도 또한 사회를 향한 봉사과 부족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비정규학생들에게 대학을 개방할 필요성이 생겼다. 본교에서는 지방화·세계화·국제화 시대에 부응하여 대학이 개방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교육원을 중점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교육원의

프로그램은 학위취득과정, 시민대학, 노인대학 등으로 나뉜다. 학위취득과정은 준학사·학사과정으로, 시민대학은 교양 교육과정·직업기술 교육과정·예체능계 교육과정·지역사회 교육과정 등으로, 노인대학은 도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려고 한다.

아홉째, 대학교회 건축기금 모금이다. 기독교 복음에 기초를 둔 초교파 기독교 대학으로서 개교 30주년을 기념하여 기독교 교육의 전당을 상징하는 성전인 대학교회를 건립하고자 한다. 대학교회는 본교만의 예배처소가 아니라 모든 개신교의 기독교대학을 상징하는 처소로서 많은 사람이 건축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다.

열째, 기숙사의 확충이다. 전북 이외의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을 위하여 3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축중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더욱 많은 시간을 학교 캠퍼스에서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숙사에는 숙박 시설 이외에 부역시설, 학생식당, 세탁실, 목욕 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이러한 기숙사 시설을 더욱 확충하여 더 많은 학생들을 수용할 계획이다.

끝으로 본교는 1997년으로 예정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평가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1994년 교육부에서 전국 50개 대학의 자연대 및 이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수-대학원생수, 교수 1인당 학생수, 도서관 자재, 실험실 등의 연구시설, 교수 1인당 연구비 수혜액, 교수 1인당 논문발표수, 과거 연구 실적 등에 대한 평가 결과, 전주대학은 50개 대학 중 34위를 차지한 바 있다. 또한 1994년 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으로 실시된 전국 생물학과 학과평가에서 본교의 생물학과의 충청남·북도와 전라남·북도의 종합 사립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학과로 선정되었다. 한편, 본교의 경상계열인 경영, 무역, 회계학과는 올해 6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평가를 앞두고 평가 준비작업을 펴고 있다. ▣